

▣ 인도, 글로벌 수요 전망 불확실성으로 2030년 그린수소 생산목표 달성 지연 가능성

- 인도 신재생에너지부(MNRE)의 Santosh Sarangi 차관은 글로벌 수요 전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도의 2030년 그린수소 생산량이 약 300만 톤 수준에 그칠 것이며, 기존 목표였던 500만 톤 생산 시점은 2032년으로 지체될 것이라고 발표함.¹⁾
 - 국제해사기구(IMO)가 추진하던 해운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채택 지연이 인도의 수소 생산을 포함한 수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.
 - 인도는 전체 수소 생산량의 약 70%는 유럽, 일본 등에 수출하고, 나머지는 인도 내 정유 산업에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, 국가 그린수소 미션(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, NGHM)을 통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의 수요를 늘리고자 했음.
 - 그러나 IMO의 해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추진이 연기됨에 따라 인도의 수소 수출시장 및 장기구매계약(Offtake) 여건이 불확실해짐.
 - 또한, 인도의 최대 수소 수출시장인 유럽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약화시키며, 그린수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도입을 미루고 있어 인도의 수소 수출 프로젝트의 FID가 지연되고 있음.
 - Sarangi 차관은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목표와 관련된 정책을 미루면서 향후 인도의 수소 수출 수요에 불확실성이 커졌지만, 인도 내 수소산업 발전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해 그린 수소 소비를 계속 늘릴 것이라고 발표함.
- 그러나 인도는 글로벌 수요 전망과 관계없이 태양광·풍력 등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린수소 단가를 낮춰 글로벌 수소 생산 허브 구축을 목표로 수소 생산을 증대하려고 함.²⁾
 - 또한, 생산뿐만 아니라 수송·철강·정유 분야에 수소를 활용하여 석탄·가스 등 기존 화석 에너지원을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계획임.
 - 특히, 철강과 정유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 기반 공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, 수송 부문에서는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버스 37대가 10개 노선에서 운행 중임.
 - 인도 정부는 그린수소 전환을 위해 4가지(수요 창출, 혁신, 인프라 구축, 규제 강화)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소 정책을 펼치고 있음.
 - 인도의 언론정보국(PIB)이 발표한 NGHM 프로젝트의 공식 추산에 따르면, 2030년까지 계획한 그린수소·암모니아의 생산설비, 재생에너지 저장·활용·인프라 구축에 따른 총 투자유치 규모는 약 890억 달러로 예상되며,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- 또한, NGHM 내 민관합작투자사업(Public Private Partnership) 기반 수소 R&D 사업을 전담하는 전략적 수소 혁신 파트너십(Strategic Hydrogen Innovation Partnership)을 통해 수소 생산·저장·활용 등 23개 프로젝트와 스타트업에 지원 중임.

1) Reuters, 2025.11.11.

2) DD India, 2025.11.13.